

「再逢春」에서 문제된 신분과 작품의 짜임새

이 동 길

<目 次>	
I. 머 리 말	IV. 문학적 평가
II. 작품의 짜임새	V. 맺 음 말
III. 짜임새의 의미와 기능	

I. 머 리 말

신소설 「再逢春」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 신분이 문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형상화하고 있다. 신분에 대한 문제는 근대를 향한 과도기 조선의 현실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서, 「洪吉童傳」, 「春香傳」에서 문제된 이래 비록 부분적이라 하더라도 조선조 후기 소설에서 중요한 문제로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신분제사회인 조선조라는 시대적 제약 때문에 표면화되지 못하고 이면적이고 부분적으로 형상화되어 왔다.

그런데 신소설 시기에서는 이것이 실질을 중시하는 당대의 개화사상과 더불어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면에서 표면화되고 있으며 신분이 인간다운 삶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데까지 나아갔다. 그러면서 그것을 형상화하는 시각과 방법도 이전과는 달라졌다.

본고는 이런 점에 주목하면서 그것이 작품에서 어떤 짜임새를 통해 짜여지고 있고 그것이 지니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再逢春」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신소설이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단순한 수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준다.

본고에서 사용된 대본은 1912년 동양서원에서 출간된 책이다.

Ⅱ. 작품의 짜임새

2.1. 전개방식

작품의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하기 위해 사건을 세부적으로 단락지어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①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김선달의 딸 계순이가 부모를 위해 이참서 집 하인으로 들어갔다.

② 李參書는 여러 대에 걸쳐 벼슬한 사대부 집의 자제로 양반 개화당에 속해 있었으나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 지금은 60노모와 젊은 허씨부인과 함께 단란하게 살고 있다.

③ 허씨부인은 남편 이참서와 이종되는 김숙희 때문에 속을 썩이고 있다.

④ 김숙희는 과거 이참서와 혼약을 정한 사이이나 그녀의 이모가 이참서의 계모로 들어옴으로써 파혼이 되자 틈만 있으면 허씨부인을 모욕한다.

⑤ 養父 허부령이 허씨부인에게 와서 돈을 요구하고 결혼 반지를 뺏어간다.

⑥ 허씨부인은 원래 자산가인 백정 백성달의 무남독녀였으나 아버지의 권유로 신학문을 배운 후 전 副領 허균의 수양딸로 들어가서 허부령의 친구 이판서의 아들 이참서와 결혼하게 되었다.

⑦ 허부령이 백성달의 집에 와서 또 돈을 요구하자 백성달이 돈을 주면서 병든 부인 최씨를 위해 딸을 한 번 만나게 해줄 것을 부탁한다.

⑧ 시모와 김숙희가 허씨부인에게 닳게 일어났다고 모욕을 준다.

⑨ 허부령으로부터 養母가 병이 깊다는 편지가 와서 허씨부인 내외가 함께 허부령의 집으로 간다.

⑩ 그 편지는 허부령이 백성달의 요청으로 生母를 허씨부인에게 대면시킬 계획으로 한 편지인데 이참서와 함께 오니 허씨부인은 병든 생모는 못보고 양모만 거것으로 보고 간다.

⑪ 허씨부인이 친정으로 간 사이에 칠녀의 고자질로 시모가 허씨부인의 결혼반지가 없어진 것을 알고 확인한 후 허씨부인이 돌아오자 결혼반지에 대해 추궁한다.

⑫ 허씨부인은 기가 막혀 그저 울면서 사정을 밝히고 집으로 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도둑의 누명을 뒤집어 쓴 하인 계순의 편지로 인해 위기를 모

면한다.

⑬ 백성달이 허씨부인을 보기를 요청하자 허부령은 또 돈을 요구하여 받은 후 허씨부인에게 가서 병든 생모를 상면시켜 준다 하고 또 돈을 요구하다가 허씨부인으로부터 수모를 당한다.

⑭ 허씨부인은 허부령을 보낸 후 병든 생모를 볼 생각에 신세를 한탄하며 궁리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허부령에게 줄 돈을 구하기 위해 부모에게 편지하여 돈을 요청한다.

⑮ 편지 부치는 것을 김숙희에게 들켜 시모로부터 의심의 받는다.

⑯ 백성달은 허씨부인의 편지를 받고 마음 고생하는 딸을 생각하며 허부령에게 따진다.

⑰ 백성달이 허씨부인에게 편지를 부친 후 허씨부인과 만나게 되는데 그 장면을 시모와 이참서가 보고 허씨부인이 부정한 것으로 오해한다.

⑱ 허씨부인은 사실을 밝히지 않는 한 그 오해에서 벗어날 길이 없자 家出한다.

⑲ 허씨부인은 시집을 나온 후 친정부모를 보고 나서 탐골승방을 향하다가 계순이를 우연히 만난다.

⑳ 허부령이 이참서로부터 허씨부인이 가출한 사실을 통고 받고 백성달에게 그 잘못을 따지자 백성달이 지난 밤에 딸과 만난 사실을 이야기한다.

㉑ 김숙희가 이참서에게 접근하나 이참서가 단호히 거절한다.

㉒ 허부령이 백성달의 절실한 말에 뉘우치고 이참서에게 가서 허씨부인이 가출하게 된 까닭을 밝혀 오해를 풀고 허씨부인을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것을 약속받는다.

㉓ 이참서가 탐골승방으로 허씨부인을 찾아 데려와 다시 함께 산다.

위의 단락 전개에 따라 작품에서 문제가 형성되고 전개되어 해결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①~⑥까지는 문제가 제기 형성되는 단계이고 ⑦~⑱까지는 그것이 전개되는 단계이며 ⑲~㉓까지는 해결되는 단계이다. ①~⑥에서 서술적 역전을 통해, 이전엔 양반이면 장사나 노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면 신분에 구애되지 않고 실질에 맞게 드러내 놓고 일을 해야 하는 변화된 상황(①)에서 이참서의 집안 내력과 현재의 정황을 드러내어 이참서가 이름이赫赫한 사대부 집안의 자식임을 나타내고 있다(②). 그런 이참서 집에 하인들의 대화를 통해 현재는 이참서의 이종이나 과거엔

이참서의 약혼자였던 김숙희 때문에 허씨부인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③④)을 드러낸 후, 양부 허부령이 허씨부인의 약점을 위협하여 결혼반지까지 빼앗는 모습을 그려서(⑤⑥) 허씨부인이 가정내적으로〈A〉 가정외적으로〈B〉 곤경에 처해 있고 그것은 결국 허씨부인의 친한 신분 때문에 빚어진 일들이란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제시된 문제점 A, B는 ⑦⑧에서 다시 각각 재확인된 후 병든 생모를 보지 못하고 건강한 양모만 거짓으로 보고 와야 하는 ⑨⑩의 사건으로 A, B가 허씨부인에게 복합적으로 얽혀지게 된다. 신분이 탄로나면 결혼생활은 파탄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씨부인이 안고 있는 고민이 신분 때문에 생기고 있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사정에서 허씨부인이 더욱 제약받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니 사랑하는 남편 이참서를 속여야 하고 시집에서 그런 사정을 조금치도 드러내서는 안되는 허씨부인의 패면적 고민은 ⑪의 사건으로 더욱 깊어지고 절박해진다(⑫).

여기까지는 그래도 허씨부인이 현실과 대립된 상태에서 마음 속의 고민을 억누르고 참아서 현재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해 갈 수 있는 단계이다. 그러나 ⑬의 사건은 허씨부인이 마음 속의 고민(A, B)을 참고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든다.

양부의 마음이 돌니지 아니하면 나눈 기진을 하야 말나죽을 것이오 시어머니와 숙희가 나를 불상히 녀이지 아니하면 나눈 눈물을 먹음고 원혼이 될지니 압헤오논 허다한 고성을 참고 지냈으면 아버지의뜻 은 승순하논 것이나 압헤오논 고성을 도더히 감당할 수가 업스면 차라리 어머니 성전에 남편 압헤 업피여 너분씩을 자복하고 곱게 도라가 부모를 뵈시고 남저지 세상을 보니논 이만 갖지 못하니.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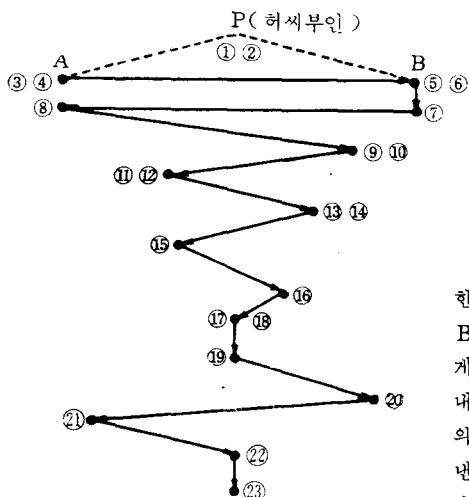
⑬의 사건은 허씨부인으로 하여금 최후의 결단을 내리게 하는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시집을 나올 생각까지 하게 하면서 ⑭의 행동을 행하게 한다. 그래서 ⑮에서처럼 편지부치는 일이 김숙희에게 들켜 의심을 사게 되고, 딸의 편지를 받아본 백성달이 허부령에게 따지면서 한편으로 자기가 직접 딸 허씨부인을 만날 것을 편지하여(⑯) 부녀가 밤에 몰래 만나게까지 된다(⑰). 이제 A, B의 문제는 절박한 처지에 있는 허씨부인에게 따로따로 생각하고 해결해 가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문제로 실제화 되었다. 따라서 허씨부인의 고민은 갈등으로까지 발전하여 자신의

1) 再逢春, p. 80. (新小説・翻案(譯)小説 10, 亞細亞文化社, 1978)

삶을 위해 가출(18)을 하게 되고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선다(19). 그 후 백성달의 절실한 말에 따른 허부령의 누우침(20)과 양반 개화당인 이참서의 혁신적인 생각(22)에서 허씨부인은 이참서와 재결합하게 된다(23).

이와 같은 사건 전개를 통해 볼 때 사건의 전체적인 전개방식은 서두 부분에서 허씨부인이 안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제시되고 그것이 ⑦ 이후 단락에서 교직으로 짜여져 A, B의 복합적 사건 속에 처한 허씨부인의 처지와 자세가 드러나도록 짜여져 있다. 따라서 순차적 사건 전개에서의 외면만 보면 ①②에서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고 ③④에서 A문제가, ⑤⑥에서 B문제가 각각 제시된 후 ⑦ 이후부터는 A문제(⑦⑨⑩⑬⑮⑰)와 B문제(⑧⑪⑫⑭⑯⑱⑲⑳㉑㉒㉓㉔㉕㉖㉗㉘㉙㉚㉛㉜㉝㉞㉟㊱㊲㊳㊴㊵㊶㊷㊸㊹㊺㊻㊼㊽㊾㊿)가 교대로 연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형상이나 한편으로 그 A, B 두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허씨부인의 자세를 드러내는데서 A, B는 허씨부인을 중심으로 복합적인 것이 되어 한 문제로서 짜여지게 된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러 꼴이 되겠다.



그림에서 A에 가까울수록 A에 대한 비중이 크다. B도 그러하다. A와 B가 중앙에 접근할수록 허씨부인에게 있어서 A, B가 복합된 것을 나타내며 그것에 직면하고 있는 허씨부인의 자세의 강도도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긴장도도 중앙에 가까울수록 더 크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사건 전체는 A, B가 연쇄적이면서 교대로 짜여져 전개되는데 사건이 진행될수록 A, B가 복합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⑭까지

는 점점 A, B의 와중에 허씨부인이 얹혀가는 모습이고 동시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다가 ⑮와 ⑯의 편지 사건으로 그 긴장을 조금 완화하면서 한편으로 허씨부인을 더욱 절박하게 만들어 ⑰⑱에서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다. ⑳㉑에서는 가출 후의 양쪽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임으로써 그 긴장을 늦추었다가 ㉒에서 다시 조여 ㉓에서 마감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말을 향해 한 곳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집중되고 있는 것도 ㉑ 이후의 사건 전개과정을 살펴 볼 때 因果關係에 따라 긴밀하게 되어 있다.

①~⑥의 서술적 역전으로 형성된 문제제기 이후의 사건진행은 A, B가 교직으로 짜여지고 있되 ⑦~⑫까지는 외적 상황이 구체화되면서 허씨부인이 내면적으로 대립된 상태를 드러내고 있고, ⑬~⑰까지는 허씨부인의 내면적 대립상태가 갈등으로 발전하여 폭발되기까지를 드러내고 있다. ⑦⑧의 사건으로 허씨부인이 처한 외적 상황이 구체화되고 ⑨⑩의 사건에서 그 상황 속에서 속으로만 고민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허씨부인의 내적인 처지가 강조되며 ⑪⑫의 사건에서 그러한 처지 때문에 절박한 지경에 이른 광경을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그 절박한 지경에서의 허씨부인의 심리적 움직임을 드러내 줌으로써 사건은 외적인 것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내적인 것을 드러내어 두 개의 사건이 복합되어 한 개의 문제로 좁혀지고 심리적인 움직임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한 개의 문제로 좁혀지면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사건은 ⑬ 이후의 사건에서 겉으로 표면화되어 노출되면서 허씨부인의 고민이 갈등으로 발전하게 되자 이제 사건은 한층 더 긴박하게 진행되면서 허씨부인의 그에 대한 대응자세에 집중된다. 따라서 ⑦~⑫의 허씨부인이 절박한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그 절박한 자경이 ⑰에서 폭발되기까지의 과정이 내적 독백에 의한 허씨부인의 심리적 움직임을 통해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짜여져 있어 ⑰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이고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⑱ 이후의 사건에서도, 단지 ㉑에서 허씨부인이 밤길에서 제순이를 우연히 만나는 장면이 우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뿐, 허씨부인의 가출 이후의 이참서 집의 반응과 허부령의 반응을 드러내면서 허씨부인과 이참서의 재결합을 향해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있어 사건 전체는 현실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한 개의 쫓점을 향해 긴밀하게 집중되고 있다.

2.2. 인물의 대립관계

전개방식에서 드러나듯이 「재봉춘」에서 사건에 관계되고 있는 인물은 허씨부인의 가정내적인 문제와 가정외적인 문제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정내적으로는 이참서, 허씨부인, 시비계순, 그리고 김숙희, 시모 조씨, 시모 시비 칠녀가 있고, 가정외적으로는 허부령, 백성달 내의가 있다. 이들의 생각과 행위를 통해 성격을 살피 그 관계된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허씨부인은 원래 백정 백성달의 외딸 백영자였는데, 아버지 백성달의 권유로 신학문을 배우고 허부령의 양녀로 들어가 이름난 사대부 집 자제 이참서와 결혼했다. 신학문을 배우면서 세상이 이전과는 다른 사정을 알게 되고 몰락한 양반집에 수양녀로 들어가 이전에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할 양반집 자제와 혼인을 할 만큼 생각이 바뀌었다. 혼인 후에는 사대부 집 규범대로 행동하여 모라람이 없고 양반 개화당에 속한 이참서와도 생각이 맞아 잘 지내고 있다. 다만 이전엔 남편의 약혼자였으나 이젠 남편과 이종간이 된 김숙희 때문에 속을 썩이나 대법하게 대하면서 지내고 있다.

이참서 균영은 대대로 조정에 벼슬하여 문벌과 명망이 일세를 진동한 집안의 자식으로 삼년 동안 해외유람을 하고 온 양반 개화당인데 일년 전에 허씨부인과 결혼하여 계모 조씨를 모시고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 은거하고 있다.

김숙희는 이균영의 아버지 이관서와 친구 사이인 김참관의 딸이고, 애초에 이균형과 혼약이 정해져 있었다. 그래서 김숙희는 신학문을 배우고 행실을 닦아 이참서의 부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는데 이모 조씨가 이관서의 후실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균형과는 이종간이 되므로 애초의 혼약이 깨어진다. 이에 이참서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혼인도 거절하면서 이모 조씨를 보러 온다는 핑계로 이참서를 보러 온다. 그러면서 틈만 있으면 허씨부인을 시모 조씨와 함께 모해하고 있다.

시모 조씨는 생질녀 김숙희가 이참서를 잊지 못해 놀러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事理에 따라 일을 처하지 않고, 김숙희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김숙희의 충동에 함께 머느리 허씨부인을 모해하고 있다.

허부령 굽은 몰락한 양반으로 과거 이참서의 아버지 이관서와 아주 절친하게 지냈다. 그는 벼슬에서 떨어진 이후 생계유지를 위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의리도 모르고 염치도 없어서 귀떨어진 쇠전 한 톨이라도 성

긴다는데는 더가리를 싸고 덤비기"까지 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래서 백성달이 주는 돈에 빠져 그의 딸 백영자를 수양녀로 들여 친구의 부인을 속이고 이참서와 결혼시키게까지 하는 인물이다. 허균은 사기결혼이 탄로날까 불안해 하지만 한편으로 백성달과 허씨부인에게 그 단처를 위협하여 재물을 빼앗는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백성달은 백정으로서는 재산을 모아 큰 자산가가 된 사람인데 색상이 달라진 것을 알고 천덕으로 인해 사퇴로부터 받는 고별과 탈시가 한이 되어 딸만은 자신과 같은 바인간자인 더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은갖 노력을 다 기울인다. 그래서 돈으로써 둘러싼 양반 허부령과 같은 위인과 관계를 맺고 그를 이용하여 신분을 갈취하고 있다.

칠녀는 시모 조씨의 하인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허씨부인을 모해하는데 가담한다. 계순이는 허씨부인의 하인으로 충직하게 일하며 허씨부인을 위해 도둑의 누명을 쓰기까지 한다.

각 인물들은 크게 보아 허씨부인과의 관계에서 적대적이기도 하고 우호적이기도 하다. 이참서는 허씨부인을 사랑하고 계모로부터 까닭없이 미움받는 아내를 감싸고 있기에 그리고 백성달, 계순이는 허씨부인과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호적이고, 김숙희는 情敵으로서 시모 조씨와 함께 허씨부인을 모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허부령은 허씨부인의 약점을 위협하여 그 삶을 위태롭게 하기에 적대적이다. 따라서 허씨부인과 이참서, 백성달, 계순이가 한 집단이 되고 김숙희와 시모 조씨, 허부령, 칠녀가 또 한 집단이 되어 양자의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허부령과 시모 조씨, 이참서와의 관계에서 허부령이 주색잡기로 세월을 보내고 있고, 허씨부인의 신분을 속이고 호인을 성사했기에 그들의 관계가 겉으로는 무관하나 대립되어 있고 속으로는 적대적이기조차 하다. 허부령과 백성달의 관계도 백성달의 약점을 이용하고 위협하여 재물을 빼앗고 있기에 적대적이다. 그 결과 허씨부인, 시모, 허부령 사이에 대립된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살펴 볼 때 이참서와 시모 조씨, 김숙희와의 관계도 그들이 허씨부인을 까닭없이 모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참서가 알고 있기에 겉으로는 좋게 대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대립되어 있다. 허씨부인과 이참서의 사이도 신분상의 문제 때문에 허씨부인이 이참서를 속이고 있기에 속으로 대립된 관계에 있다. 그리고 허씨부인과 아버지 백성달 사이에도 아버지 백성달의 소원을 들어주느라 고통을 당하고 있는 허씨부인이 내면독백을 통해

아버지를 원망하고(p. 80) 있는 데서 드러나듯이 부녀 사이에도 속으로 대립되어 있다. 따라서 허씨부인을 중심으로 이들 인물들은 서로서로 크고 작은 문제로 대립된 관계에 있고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적대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갈등하게 된다. 그러므로 허씨부인은 이들 인물들 속에 둘러싸여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결국 작품 전체는 인물의 대립을 중심으로 하여 볼 때 서로 이해관계 따라 대립되어 있고 그것이 갈등으로까지 발전하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물과 인물들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어서 사건이 빈틈없이 짜여지게 되고 사건전개에 현실성과 긴밀성을 부여하여, 실제 현실과 밀착된 느낌을 갖게 하고 있다.

Ⅲ. 짜임새의 의미와 기능

사건의 순차적 전개에서 표면으로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바는 시모(김숙희)의 모해와 허부평의 파렴치한 행위이다. 시모는 생질녀 김숙희에 대한 무분별한 동정심에서 김숙희와 같이 허씨부인을 미워하고 허부평은 허씨부인의 약점을 위협해서 허씨부인을 번민 속에 몰아넣어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

시모의 김숙희에 대한 동정심은 사리에 따라 행했는데도 일이 어그러짐에 따라 오는 바른 동정심이 아니라 친족에서의 감정이 앞선 무분별한 동정심이다. 김숙희의 처지로 보아 애초에 이참서와 혼약이 정해진 사이라 하더라도 이모가 이참서의 계모로 들어와 이참서와 이종간이 되어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된 처지에선 당연히 다른 남자를 구해 시집을 가야 하고, 이모 조씨도 마땅히 김숙희에게 사리를 바로 인식시켜 김숙희로 하여금 그러하도록 설득하고 타일러야 마땅하다. 그것은 이참서가 김숙희를 사랑하는데도 집안에서 억지로 허영자와 결혼하게 하였으면 또 다른 문제이나 이참서도 김숙희와의 파혼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지니지 않고 있고 김숙희에게도 사리를 들어 혼사문제에 대해 엄절히 거절하며 친척의 도리로써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이참서와 허영자가 결혼을 하여 단란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동정심을 앞세워 허씨부인을 모해하여 그들의 삶을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이다. 설사 김숙희와 이참서가 가족제도상으로 이종간일 뿐 전연 남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내세

위 시모와 김숙희가 처음의 혼약대로 하기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사회의 규범을 존중하는 그들이 그 규범을 파괴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의 삶까지 파탄으로 몰아넣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집안의 사정과 사리를 알고 있는 시모로서 사리에 벗어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김숙희도 <이참서의 부인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규범도 익히고 신학문까지 배웠으니, 허씨부인을 모해하고 있는 자신이 잘못된 줄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욕망과 감정에 사로잡혀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니 자기모순을 범하게 된다.

한편 허부령은 생계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백정 백성달과 인연을 맺게 되고 백성달의 양반혼인 요구에 따라 절친한 친구의 부인 조씨와 이참서를 속이고 백성달의 딸과의 결혼을 성사시켰다. 그 후 형편이 나아진 허부령은 주색잡기르 세월을 보내면서 돈이 궁하면 백성달과 허씨부인에게 그들의 약점을 위협하여 돈을 빼앗고 있다. 그러나 허부령은 과거에 이참서의 아버지 이관서와 아주 절친하게 지냈고 현재 허씨부인에게 부녀의 명분을 들어 부녀의 도리를 행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사람으로서의 행해야 하는 道理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의리도 버리고 파렴치하게 행동하고 있다.

이기적인 행위와 그러한 삶의 전형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일은 사건의 전체적 진행에서 뚜렷이 표면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인물간의 대립관계에서도 이기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대립관계로 압축되어 이기적인 것이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그 스스로의 모순으로 인하여 자기의 삶마저 파탄으로 몰아 넣고 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이기적인 인물들 속에서 살아가는 허씨부인의 삶에 초점을 두어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드러내고 있다.

허씨부인은 이참서에게 당시의 신분관념에 따른 친한 신분을 속이고 혼인한 것에 대해 늘 마음 속으로 미안해 하고 있다. 그러나 허씨부인은 양아버지 허부령의 부녀의 도리를 떠난 이기적인 행위에서 그리고 시모의 사리에서 벗어난 처사에서 세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규범대로 행해지고 있지 않음을 경험으로 확인하게 되고 자기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나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봄으로써 신분으로 사람을 가르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새삼 인식하게 된다. 그것은 신학문을 배워 인간의 평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허씨부인으로써 세상이 바뀌어 신분에 대한

법적인 구속이 철폐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그러니 허씨부인은 이참서에게 속인 사실을 당시 형세상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일일 뿐 그것에 대해 양심적인 가책을 가지지 않는다. “이십이 갓갑도록 정의에 어그러진 일은 아니 하얏고 인도에 버셔나는 행실도 없었”기에 양심에 대한 가책은 없다. 오히려 ‘광명한 사정’을 이야기 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인습에 대해 그 부당함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사리에 벗어난 시모 조씨와 김숙희에게 대해 그리고 신분에 대한 약점을 잡고 위협하는 이기적인 허부령에게 대해 허씨부인은 그들이 주장하는 허울 뿐인 도리나 관습에 맹종하지 않고 자신의 의미 있는 삶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이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에 따라 허씨부인은 시모 조씨와 김숙희에게 도리에 맞게 의젓하게 대하면서 그들의 모함에 대해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써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허부령의 부녀의 도리를 떠난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부녀의 도리로서 할 수 있는 때까지 다 한다. 그러나 더 이상 그 무리하고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자 사리에 따라 말하며 허부령의 지나침을 그쳐주기를 요구한다.

여기서 허씨부인이 그렇게 한 것이 겉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도리에 맹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나 속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허씨부인에게 있어서 삶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남편의 사랑과 명예를 지키는 일이고 아버지 백성달의 뜻에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이참서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백성달의 뜻이자 자기의 뜻이고 그것이 가능하고 당연하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부령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허씨부인의 병든 생모를 상면시켜주지 않겠다고 하고 그런 사정을 모르는 시모가 허부령이 빼앗아 간 허씨부인의 결혼반지에 대해 추궁하자 허씨부인은 자신의 처지에서 사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고 비장한 결심까지 하면서 삶을 의미있게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압해오노 고성을 도려히 감당호 수가 입스면 차라리 어머니 섬전에 남편 압해 업되여 니분식을 자복하고 품게 도라가 부고를 피시키고 남저저 세상을 보니노 이만 갖지 못하니 그러던 숙희와 시어머니도 죠와호실터이요 다만 익석호 것은 아버지씨서 평성함을 다하야 이리케 해주신 일을 셔트리는 것이니 니가 시집드러온 뒤에 시어머니와 숙희에게 고성호던 말과 양부의 위험 강박을 참고 입셔와지 전되여 온 일을 낫낫치 엇주면 아버지 부탁을 저바렸다고 꾸지람은 아니호실터이

니 어서 밧비 남편 압헤 나가 잘못헌 일 사과나호고 곱게 보니쥬기를 빌니라.”

허씨부인은 친정부모에게 편지하여 허부령에게 줄 돈을 얻어서 사태를 해결하려 하나(p. 91) 그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기에 앞으로 계속될 마음의 고생보다 사실을 남편에게 밝히고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다. 백성달은 허부령처럼 양반이라 하더라도 자기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신분 때문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그 부당한 일을 딸만은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원이었기에 그 소원을 알고 있는 허씨부인으로써 남편과 헤어지는 것을 결심한다는 것은 사회인습에 대한 장벽을 절감하면서 현재까지의 삶에 대한 포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허씨부인의 앞으로의 삶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삶이란 사람의 도리를 다 하는 데서 이룩될 수 있고 그것은 이룩하는 방법과 길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씨부인은 신분에 대한 고정된 관념에서 그리고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위협받고 제한받는 삶보다는 비록 사회로부터 고정된 신분관념 때문에 천시를 받을지 모르나 사람다운 구실과 도리를 다하면서 마음 편히 살아가는 길을 택하려고 한다.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살펴 생각지 않고 주관적인 무분별한 감정이나 고정된 신분관념에 따라 사람을 매도하고 위협하는 것이 사람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험했기에 마음 편히 부모를 모시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 길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그러기에 허씨부인은 허부령이나 시모처럼 억지로 고집하고 소요를 일으켜 남의 삶을 파괴하지 않고 사실을 남편과 아버지에게 조용히 알리고 물러나와 부모를 모시고 살아갈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점은 허부령의 위협 때문에 생긴, 아버지 백성달과 허씨부인이 밤에 만나는 장면을 이참서가 보게 되어 부정하다는 인식을 하게 됨에 시집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다만 한 가지 못키 어렵고 잡지 아니호면 안될 것은 계순의 은혜라 나 한아를 위호야 억울호 죄명을 쓰고 정처 업이 나갓스니 엇더케 호던지 그것을 차져서 은혜를 갚아야 호지 입쳐까지논 남편의게 거리껴여 잠시도 나오기 어렵고 또 아버지 쫓을 어기일 슈가 업서 자식의 도리를 이저 바렷더니 인제는 아모리 호야도 집에서 살지 못호게 된 이상은 어버이 생각호는 마음이 더욱 간절호야지니 지금

이 집을 도망하야 나가서 병드신 어머니나 가 뵈은 후에 천디신명에게 덕하야 조금도 붓그러울 것 업논 니몸을 불가문중에 붓치여 강상의 말근 바람과 산간의 발근 달로 벗을 삼아 남지저 세월을 보느니라.³⁾

허씨부인은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최대의 보루였던 남편 이참서마저 오해하여 자기 절을 떠나게 되자 삶의 의미가 흔들리게 된다. 하지만 ‘본래 행실이 글너서’ 그런 것이 아니므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 오해가 풀려지리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한다. 여기서 우리는 허씨부인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행실이 그르지 않다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지켜왔다는 것이며 이는 이제까지 허씨부인이 해왔던대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내와 며느리의 도리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며 심지어 부녀의 도리를 명분으로 들어 말하나 부녀의 도리에서 떠난 양부 허부령에게까지 부녀의 도리로서 다했는 것이 그것이다. 사람의 도리를 다할 때 사람으로서의 값어치가 있고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그래야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전의 고정된 신분관념으로 가르거나 평가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사람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실질적이고 보다 중요한 것이란 생각에서 허씨부인은 남의 삶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삶을 온전히 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 그래서 의리를 지켜 계순이의 은혜를 갚고 시가의 명예와 남편 이참서의 사랑을 위해 그리고 부모를 위해 조용히 시집을 나와 자기 혼자 살아갈 길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의 사랑을 지키고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는 이 모두가 자기 삶을 온전히 하는데서 이룩된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남편의 사랑을 위해 부모의 무한정한 피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며 부모에게의 효도를 위해 자기 삶을 희생하지 않는 것에서 이룩된다는 생각이다. 전자는 자기 삶을 위해 남의 삶을 파괴하지 않는 것이고 후자는 자기의 삶이 없이는 효도를 온전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허씨부인은 사람다운 삶을 이룩하는 것은 자기의 자아를 잃지 않는데서 비롯되며 그것은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남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도 위하는 데서 이룩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삶은 자기 스스로 성취해 가는 것이지 달라진 현실에서 기존 규범에 순종하는 데서 이룩된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스스로 결단

3) 再逢春, p.135.

하고 찾아 나서고 있다. 생각의 방향이 개인이 중심이 된 사고방식이면서 각 개인이 서로를 위하는 쪽으로 변했다.

그러기에 혼자 살아가는 길을 택하면서도 그것이 의미가 없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를 위해 희생한 하인 계순이를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생각과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허씨부인과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던 이참서와 재결합할 수 있었다.

결국 「재봉춘」에서 작품 전체를 통해시도, 김숙희와 허부령의 이기적 행위를 연쇄적으로 엮으면서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피해 입는 허씨부인의 삶과 허씨부인의 자세를 드러낸 것은 사람다운 행동을 할 때 모두가 동일하다는 자아각성에서 신분에 대한 인습을 타파하고 그에 따른 개인중심의 삶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었다.

개인 중심의 삶은 지배계급의 권력에서의 집착에서 기인한 그들 자신의 지배이념에 모순된 행위와 그로 인해 초래된 규범의 붕괴 그리고 지배계급의 부패에서 오는 민란과 서민적식의 성장 또한 한문 단편에서 볼 수 있듯이 富를 토대로 한 서민계층의 성장과 신분상승 그리고 몰락 양반의 신분관념에서 벗어난 행위 등에서 조선조 후기부터 자연스럽게 배태되어 신소설 시기에선 외세의 침입과 더불어 표면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것은 생활에서 명분보다 실질을 무엇보다 중시하게 했다. 특히 19세기 말 외세의 침략으로 혼란된 현실에서 실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 삶의 근거로서 더욱 중요함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현실에서 삶을 대하는 자세의 흐름이 크게 바뀐 것이다. 이것이 백성달의 삶의 근거였고 백성달이 행세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 혼자만의 실질에 집착하게 되자 남의 삶을 파괴하고 결국엔 자기의 삶마저 파괴하는 이기적인 것으로 변해 형식적인 규범이 그 본연에서 벗어나 극단적인데로 나아갔듯이 극단적인데로까지 나아갔다. 권력에 집착한 집권층의 비리에서나 허부령이나 김숙희의 행위에서처럼 그것은 극단적인 이기적 행위로 나타나게 됐다.

이것은 삶에 있어서 큰 변화요인으로 작용하여 삶의 양상을 바꿔 놓았다. 고소설을 통해 볼 때 이전까지는 대체로 기존 윤리규범과의 대립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것을 통해 기존 윤리규범을 재확인하면서 이면적으로는 개인의 실질을 드러내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기적인 삶이 현실생활 속에 크게 대두하자 이 시기에서의 삶은 기존의 허울 뿐인 규범적인 삶과 대립하면서 동시에 이기적인 삶과 대립하게 되고 그것들 사이에도 서로 대립되는 양상을 노

출하게 된다. 이러한 것은 현실을 더욱 혼돈되게 하여 바른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가기도 했지만 그것들 각각의 본질을 다시 파악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삶의 방향과 양상을 형성하기도 했다. 그것은 형식화된 기존 윤리규범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원만히 하게 해주고 조화로운 전체적 삶을 형성하게 해줄,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찾아내어 살리면서 당시 삶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는 실질적인 태도를 중시하여 그들을 융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재봉춘」에서도 시모로 상징되는 기존 윤리규범을 중시하는 인물과 허부령과 김숙희를 통해 형성화되고 있는 이기적인 인물들 사이에 기존 윤리규범을 존중하면서도 실질을 중시하는 허씨부인과 같은 인물들을 내세워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개인 중심의 삶은 개인이 사회의 윤리규범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던 것에서 벗어나 그것을 상대적으로 인식하면서 자아의 자유의지를 일상생활에서 더 확대하고 확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은 개인의 실질을 추구하는데 보다 적극적이 되며 그것이 기존규범의 전통적 바탕 위에서 형성될 때 주체적인 삶을 이룩하게 된다.

그것을 재봉춘에서는 시모와 김숙희에게서의 파생된 문제 A와 허부령에게서 발생한 문제 B의 상호연쇄적 전개를 통해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주인공 허씨부인을 내세워 A, B의 복합적인 사건 속에 주인공의 삶의 자세와 양상을 그려낸 것이다. 그러므로 「재봉춘」에서 개인중심의 삶을 형상화하기 위해 사용된 전개방식과 인물 대립은 당대 사회에서의 삶의 논리와 사회구조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의 실질을 드러내는데 왜 이와 같은 짜임새로써 하고 있는가. 이전의 고소설에선 인물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기존의 윤리규범에 의지하여 그에 입각한 생각과 행동을 형식화하고 시적 정당성을 통해 재확인하게 하면 되었지만, 신소설 시기에서는 행위의 기준이 되는 그 규범이 붕괴되니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되고 그 규범에 입각한 생각과 행위가 시적 정당성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태를 현실에서 경험함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거나 찾아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래서 기존 윤리규범에 입각한 행동과 기존 윤리규범에 반한 이기적인 행동을 형상화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적 일관성을 부여하여 일면적인 타당성을 얻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일관성이 개인의 실질을 추구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타당할지 모르나 인간 보편적 삶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자기만을 내세우고 상대방을

무시함으로써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윤리규범에 입각하여 행동하거나 그에 반하여 행동하거나 간에 그것들이 상대방은 생각지 않고 자신의 이익 내지 실질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인물로 하여금 인지하게 한다. 그리고 그 인지하는 과정을 내면 독백과 대응자세를 통해 나타냄으로써 독자들이 그 모순과 그 모순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가를 인식하게 해준다. 그 결과 삶에 있어서 신분이 필요없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현실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뀐 달라진 현실에서 실질을 중시하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말해서 변화된 현실에서의 새로운 가치관이 어떠한가 할 것인가를 주인공의 삶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그것을 서술자의 일방적인 설명이나 관념적인 시적정당성만으로 독자들에게 타당하게 인식시킬 수 없으니 자기의 실질에만 지나치게 중시하여 모순에 빠지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대응자세를 현실 세계의 인과관계에 따라 전개되는 사건 속에서 내면독백을 통한 심리적 움직임과 그에 따른 행동으로 일관되게 나타내어 필연성이 도출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건은 관계된 주요인물들 사이와 그 범위 내에서 형성되는 것이 지 관념적 인과논리가 붕괴된 이 시기에 주인공의 행복한 결말만을 위해 삼화적 사건이 필요할 때마다 끼어 들게 하거나 우연한 일치를 남용하여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주요인물들 간의 관계내에 국한해서 현실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그러니 자연히 인물들 사이에서 문제되는 한 문제에 촛점이 모두어 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이제까지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온 가치기준이 무너져 혼란하게 되니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단순히 인물이 선하다 악하다 혹은 선한 자는 반듯이 행복하게 된다는 등의 생각이 통용되지 않는데 대한 결과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하여 그것이 타당하고 확실한 것임을 나타낼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현실적 인과관계에 따라 한 문제에 촛점이 집중된 위와 같은 짜임을 짜고 있다.

Ⅳ. 문학적 평가

「재봉춘」은 고전소설에서 문제시 되어온 신분문제를 표면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당대 사회의 흐름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다른 시각과 방법으

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대소설을 극복한 신소설로서의 자질을 드러내고 있다. 고전소설 특히 「춘향전」에서 문제되고 있는 신분문제는 조선조 사회에서의 신분제도란 모순된 사회제도를 비판하고 그 부당성을 드러내어 신분상승을 꾀하는데 초점이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신분문제는 인간다운 삶을 형성하기 위한 최대의 과제로서 문제되었고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평등의식과 주체 그 자신의 당대의 윤리규범에 일치하는 실질적인 면모⁴⁾를 갖추는데서 해결되고 있다. 그러던 것이 신소설 「재봉춘」에서는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신분제도가 철폐되었으나 그것이 관념화된 현실에서 벌어지는 삶의 비리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그 허구성을 드러내는데 초점이 주어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실질적인 면모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해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형상화하는데 비중이 두어져 있어 개인중심의 삶의 윤리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재봉춘」은 이와 같은 개인중심의 삶의 윤리를 형상화하는데 있어서 고전소설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처럼 고정된 세계관에서 이미 설정된 삶의 윤리를 새삼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있다. 현실의 실상과 동떨어진 선과 악을 기존 관념에 따라 이상적으로 제시하고 삶을 이분화시킨 후 그 어느 삶을 택하라고 강요하는 단순논리가 아니다. 혼란된 당대 사회에서 신분에 대한 인습의 질곡에 허덕이는 대다수 일반 서민들이 절감하고 있는 인간적인 생존의 문제를 깊이 의식하고 그것이 온당하게 실현될 수 없는 원인과 이유 그리고 사회적 모순을 현실에서 경험한 인과적인 논리에 따라 형상화하고 있다.

인물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백성달의 말처럼 ‘혼돈의 세계’이다. 양반이 몰락하여 천민보다 더 못하고 생존하기 위해 천민보다 더 나쁜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으며, 일부 양반들은 개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실에 직접 나서기도 했지만 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거나 이참서처럼 은둔해 있기도 한, 그러면서 보수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구습을 고집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한편으로 서민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부를 축적하여 이전의

4) 「漢文短篇」(李祐成, 林煥澤 譯編)에 있는 「金令」, 「平交」, 「安東郎」, 「舊僕莫同」, 「掃雪」등을 통해 볼 때 신분상승은 실질적으로 富, 才能, 德과 같은 주인공 자신의 실질적인 면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면모가 「春香傳」에서 춘향이가 사대부집 부녀와 같은 행위규범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그리게 하고 춘향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작가의 현실에 대한 인식바탕을 제공하였을 것이다.

신분관념에 구애되지 않고 백성달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니 어느 것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지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혼란된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실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것은 극단적인 데로까지 나아가 자신의 삶만 생각했지 남의 삶은 생각지 않고 남과의 관계도 돌보지 않아 이기적인 삶을 형성하여 남의 삶마저 파괴하기에 이르렀다.

작품에서 설정된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작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문제로서 제시하고 있다. 작자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변화된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삶의 논리가 고전소설에서처럼 단순논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절박한 삶 속에서 그들 각각의 삶을 꾸려가는 데 알맞는 논리로서 나타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런 점은 귀족적 영웅소설에서 볼 수 있고 판소리계 소설에서 표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삶의 단순논리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점이며, 변하고 있는 역사에서의 새로운 삶의 양상으로서 그것에서 한 단계 나아간 역사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다.

「재봉춘」은 이런 삶의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를 인물관계와 전개방식에서 새로운 모습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재봉춘」은 고소설에서처럼 선과 악으로 양분된 인물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인물관계를 형성하며 서두에서 확연하게 문제점이 제시되고 그 문제점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가를 독자들이 즐기는 그래서 관념적 인과논리에 따라 주인공이 반드시 행복하도록 결말에 이르기까지 사건을 얼마든지 삽입할 수 있는 개방적인 전개방식이 아니라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 문제점이 구체화되고 그 문제점이 왜 발생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가야 올바른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분석적인 사고와 체계화를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인과논리에 따른 집중한 전개방식을 취하고 있다.

작품에서 인물들은 허씨부인을 중심으로 하여 뚜렷하게 선과 악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주인공인 허씨부인도, 적대자인 김숙희, 시모 허부형 모두가 선과 악을 공유하고 있는 인물이다. 상황에 따라 그들의 행위는 선하게도, 악하게도 판단될 수 있다. 이런 인물들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 복잡하고 밀접하게 얽혀 다원적인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작자는 이해에 얽힌 삶의 논리에 따라 인물들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속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독

자로 하여금 분석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를 통해 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시모 김숙희 허부인은 다 그들 나름대로의 행위의 이유와 논리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허씨부인이 고민하고 고통당하는 실정을 드러내어 허씨부인이 삶의 의미를 구현하며 생존해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행위논리와 가치기준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문제삼음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심리적 움직임을 통해 드러냄으로서 독자로 하여금 문제를 분석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여 해결해가도록 짜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문제에 국한해서 세밀히 분석해 가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니 전체적인 전개방식은 현실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진밀하게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이 사실주의 문학의 발전도상에서 보았을 때 근대소설의 성립을 위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봉춘」은 주제 면에서 그리고 그것을 형상화하는 수법면에서 소설사에서 그 가치를 획득하고 있다 하겠다.

V. 맺 음 말

「재봉춘」은 신분제도에 대해서가 아닌 신분에 대한 인습적인 고정관념을 문제삼고 있다. 신분제도가 공식적으로 철폐된 시기에서 신분제도는 이제 의미가 없고 신분에 대한 고정관념이 문제될 뿐이다. 그러니 신분문제는 신분해방이란 삶 전체의 이념적인 문제가 될 수 없고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 삶의 윤리로서 문제되고 있다.

이렇게 된 때에는 기존의 당위규범이 붕괴되고 그것에 따른 삶이 여전히 존속하나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가치기준이 흔들림에 따라 이기적인 삶이 무성하게 피어나게 되니 사람들은 그 와중에서 자신의 삶을 지탱해줄 이념적 기반을 찾아내야만 했는데서 기인한다. 그것은 생존에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것이지 이름 뿐인 명분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더욱 그러했다. 그 결과 허울 뿐인 신분에 대한 문제는 거인의 삶을 이룩하는데 있어서의 부차적인 문제로 되어버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분에 대한 인습적인 생각 때문에 삶의 비리가 생겨나게 되자 「재봉춘」의 작자는 그것의 허구성을 드러내어 비판하면서 의미있는 삶을 위한 삶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개인의 실질을 중시하는 것이되 전체의 삶을 파괴하지 않는 것으로써 개인중심의 삶의 윤리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재봉춘」은 바로 이런 문제를 다원적인 인물관계 구조를 통

해서 그리고 이전 고소설보다는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현실적인 인과논리에 따른 사건전개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이 점이 이전 고소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새로운 점이다.

참 고 문 헌

- 金烈圭·申東旭 編：新文學과 시대의식，새문사，1981.
趙東一：한국문학통사 4，知識産業社，1986.